



..  
창조임업을  
촉진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6차산업 활성화”

지난 6월 5일 경기도 가평 설곡산촌마을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임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진흥원은 원장을 비롯해 총괄본부장등 임·직원과 가평 설곡산촌마을에서는 마을 6차산업 추진위원장, 주민, 가평군청 등이 참석하여 산촌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3차산업화 체험프로그램의 추진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산림분야에 6차산업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는 지난 2월 강원도 붓꽃섬 아트인아일랜드 이후 두 번째로 진흥원이 실시한 6차산업 현장토론회로서, 앞으로도 김남균 원장을 필두로 전국의 6차산업 선도사업장을 직접 방문, 연속하여 기획 추진할 예정이다. 진흥원 전 임직원이 소관업무 수행함에 있어 임업분야의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지속되고 있다. 6월 17일에는 ‘청도감와인’ 현장을, 18일에는 작년 농업 6차산업 경진대회 ‘은상’ 수상마을인 ‘문경오미자밸리’의 현장을 방문하고 농업분야의 관련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을 이어나갔으며, 이러한 찾아가는 학습을 통해 진흥원의 6차산업 활성화 노력과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한 6차산업의 바람이 거세다. 정부는 작년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379개소를 선정했고, 올해 6월 4일 본 시행에 따라 6차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를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의 원년’으로 발표하고, 각 지역별로 ‘창조혁신센터’와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개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우**  
한국임업진흥원 소득지원팀 선임연구원

6차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54.3%, 농가의 소득에 비해 85.7%, 어가대비 77.6%의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업의 1차 작물 소득원을 탈피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6차산업화를 통한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과 산림분야는 일반적인 농업에 비해 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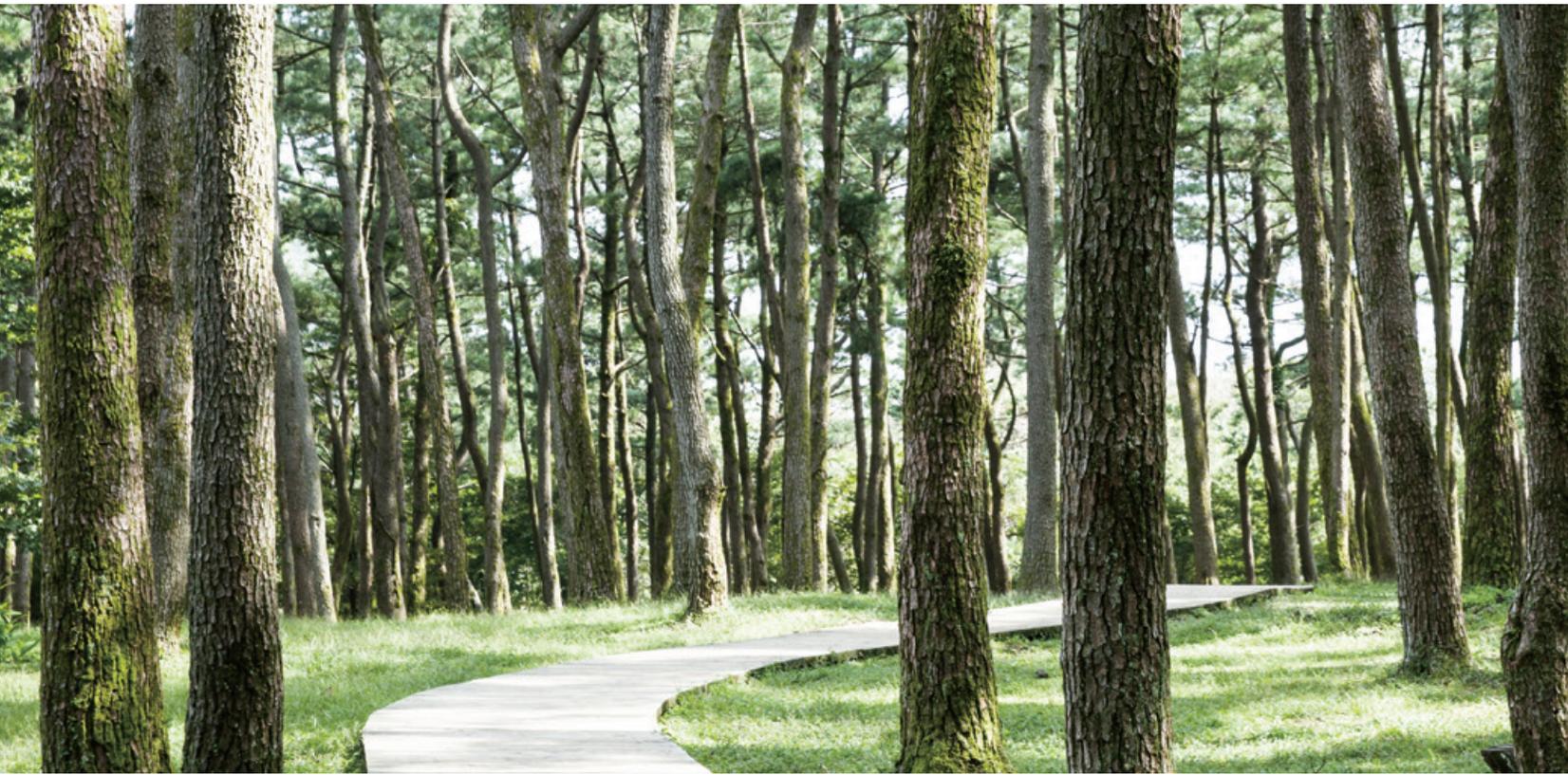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매우 다양하여 적절한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창조임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업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기존 수행 중인 귀산촌 컨설팅, 재배자 교육프로그램, 목재·산림정보 제공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6차산업의 기틀을 제공하고 창업으로 발전, 연계하는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산림소득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이라는 기관의 궁극적 미션 아래 ‘6차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융·복합 임업서비스의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중점사업을 수행하는 중이다.

산림분야에 특화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개발부터 6차산업 창업·육성·판로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창조임업을 실현가능토록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임업진흥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단계에 있는 임업분야 6차산업화를 위해 기본지원부터 발로 뛰겠다는 내용으로, 진흥원의 소관업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각의 전략사업을 구분하고, 중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첫째** 주요사업의 내용은 첫째,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기반조성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총괄하고 진흥원이 주관·시행하는 ‘산촌 6차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올해 최초로 시작하여 창의적인 아이템이 돋보이는 6차산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20 마을(단체)에게 각 3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이며, 2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또한 6차화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임업인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발적, 능동적, 창의적인 사업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혜택기반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제 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둘째** 임업역량 강화를 위해 ‘신활력 창조사업 지원 고도화’를 추진 방향으로 하여, 될 만한 아이템은 중점 육성하자는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좋으나 분야별 전문 컨설팅 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발프로그램이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사업추진의 주체인 리더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컨설팅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림부 6차산업 인증 취득지원을 통한 정부지원 혜택을 도모할 예정이며, 도시사회 저변에서 활동하다 농·산촌의 삶을 택하는 젊고 추진력 있는 귀농·귀산촌인이 6차산업화의 인적동력임을 인지하고 산촌미리살아보기 캠프

프 등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낮은 임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6차산업화가 외연확장에 이은 시장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도 함께 발굴, 육성한다. 관련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일자리의 지속성을 위해 고용사업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6차화 사업장에서 나온 제품 등에 대한 판로개척 및 가치증대를 위해 기술거래를 지원하고 특히 등 산업재산권 측면에서도 제도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임업분야에 필요한 전 연구용역 범위에



서도 1차, 2차, 3차산업의 연계를 추진하는 R&D 사업도 함께 할 방침이다.



**넷째** 이러한 일련의 업무들을 통한 선도 우수사례 및 성과의 도출·확산을 위하여 전국에 숨어있는 선도임업분야, 스타 임업인을 집중 발굴하여 진흥원 산림사업 및 임업인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성공스토리를 함께할 예정이며, 작년부터 이어지는 청정임산물 축제와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임산물 판로 개척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에서 6차산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우수경영체의 생산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 공공기관 정부 3.0 우수사례 7선에 선정된 ‘산림정보 다드림(林)’서비스를 6차산업화의 정보제공 전초기지로 삼아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고도화하여 창업아이템 기획, 산림활용 데이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제 더 이상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닌(새로운 것만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생각을 조금 바꾸고 다듬어서 다른 분야 실정에 맞게 아이디어를 더할 때 비로소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것이다. 임업부문에서도 이러한 창조경제 시대의 융·복합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흩어져 있는 창의적 아이템의 개체를 잘 반죽해 시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임업의 변화하는 패러다임과 시장개방, 영세농, 고령화, 임가소득 정체 등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임업을 제조·가공·유통·관광 등과 융·복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종합산업으로 육성하고 가치 높은 임업을 위한 한국임업진흥원의 노력은 오늘도 아낌없이 진행 중이다. 🌲